

■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(유형①) 지원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(유형①)
- 회의일시 : 2024년 12월 13일(수) 10:30~15:00
- 회의장소 : 비대면 화상회의(Zoom)
- 심의위원명(가나다순) : 강석란, 김미정, 박혜영, 백기영, 안현정, 이성곤, 정석순

2024년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 사업은 국제예술교류의 주요 요소인 ‘네트워크’에 주목하여 지원사업을 통합, 재설계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(유형1) 심의는 우수 작품의 국제무대로의 진출을 넘어,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본 사업은 1) 지속가능한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‘비지정’ 사업과, 2) 예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해외 협력 레지던시 기관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‘지정’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, 이 구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.

본 심의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전수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. 본 심의에서는 장시간의 숙고를 거쳐 지원자 선정 및 예산 배분을 확정지었습니다.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신청자/단체의 기존 활동 실적을 고려한 역량 평가 및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. 둘째,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타당한지 여부. 셋째, 후속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. 이러한 대원칙 하에 각 신청주체의 역량과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, 분야나 장르별 특성에 따른 교류 내용과 방식 등의 차이는 심의위원 모두의 의견을 적극 청취, 숙고하였습니다.

신청사업들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심의였습니다. 팬데믹 이후 국제적 교류 및 소통에 대한 예술가들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,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업의 취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각 분야마다 공히 1) 세계 속 한국 예술의 지역적 특색에 대한 고민, 2) 해외 예술 동향과의 적극적 소통 의지, 3) 차세대 예술가의 재생산 플랫폼 등에 대한 고민, 4) 각 분야간의 융합에 대한 관심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자면, 1) 미디어,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밀도 높은 고민과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, 2) 각 분야 예술의 갱신, 3) 지역 예술의 지정학적 특징, 4) 기후위기, 생태문제 등 최근 시의성 있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

‘비지정’ 사업 심의에서는 특히, 기획서의 우수함이 곧 실제 성과로 직결될 수 있을지,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실제 국제 교류의 확장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, 신청인이나 단체의 역량 뿐 아니라 해외교류 파트너의 역량과 가능성도 충분한지 등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였습니다. 또한 ‘지정’ 사업 심의에서는 기존 레지던시 사업 성격을 넘어

해외 협력 기관을 통한 현지와의 교류 및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 성격이 강화된 신청 주체를 주목했습니다. 창작의 장소가 반드시 그곳이어야 할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, 해외 현장에서의 구체적 소통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확인했습니다.

심의회원 전원은, 본 사업이 한국의 예술가 및 국제예술 역량 발굴 및 확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본 사업의 지속, 확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. 또한 각 분야의 특성상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성격이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인지하였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연결과 접속 자체가 예술의 주요 조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, 각 분야 특성에 기반한 연결과 접속에 고민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 그 주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.

이런 의미에서 향후, 일회성 행사 참가나 초청 등을 넘어 개인/기관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더 다양해지기를 바라고, 이번에 예산의 제약으로 선정되지 못한 많은 신청자/단체 분들의 가능성 역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마지막으로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분야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예산 규모가 확충될 필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(유형①) 심의회위원회 일동